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구청장 및 시장·군수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벌써부터 물밑에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을 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시·도 교육감, 구청장 및 시장·군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의 면면을 살펴본다.

〈사진은 현직, 가나다 순〉



강기정 재선 가도...경쟁 '후끈'

광주시장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정치 1번지' 광주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의 연임 도전에 맞서 후보군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군으로는 9~10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5~6파전이 예상되고, 본선에선 민주당과 맞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도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다자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인 강기정 시장은 3선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요직과 청와대 정부수석, 이재명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경륜과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민선 8기를 시작한 강 시장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광주 시장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복합소방망을 유지하는데 성공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를 이끌어냈다.

강 시장은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을 광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는 데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I로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재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및 AX실증밸리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도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의 폭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재선인 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100% 출석하는 등 '입법 노동자'라는 본연에 성실히 임하는 인물로 꼽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대표 발의도 압도적이었고, 2022년 검찰 개혁 법안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문인 복구청장도 광주시장 출마 행보에 분주하다.



강기정



민형배



문인



이병훈



이형석



정준호

민형배·문인·이병훈 등 본격 행보...이형석·정준호 '고심'

민주당 공천장 놓고 '한판 승부'...조국당 등 후보군 관심

문 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광주시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까지 두루 섭렵한 자타가 공인하는 '기획통'이다. 문 청장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취임 당시 5700억원이던 복구 살림을 7년 만에 1조2000억원으로 늘리면서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6년 연속 예산 1조 시대를 열었다. 또 13회 연속 예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7회, 국무총리상 10회 등 738회에 걸친 수상 실적 등이 그의 행정력을 대변한다.

정청대 당대표의 '호남 메신저'로 통하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그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친 뒤 광안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동구에서 박주선 의원과 총선에서 세 번째 맞대결 끝에 금배지를 획득한 그는 특유의 낙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젊은 피'의 열정과 패기가 강점인 40대 가수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홀수저' 출신의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 의원은 2001년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내년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석 전 국회의원도 민주당 내 정치 구도를 관망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금융계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풀뿌리 정치인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3선 도전 김영록-與중진 빅매치

전남도지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사 선거전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 최초의 '풀타임 3선(12년)'을 완성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중진들의 도전이 판을 뒤집느냐다. 전남 특성상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과 맞물리는 만큼, 후보 선출 과정 자체가 지역 권력 지형을 가를 최대 변수로 되고 있다.

현직 김영록 지사는 이미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선 8기 3주년 회견에서 "도민이 허락하면 민선 9기에 도전하겠다"고 못 박으며, 통합의대 설립 등 진행 중인 핵심 과제의 '마지막 1%'를 채우는 리더십'을 앞세웠다. 강진·완도 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18·19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도정을 이끌어온 경륜이 기반이다. 서남권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가산단 유치, 대형 프로젝트의 탄력이 붙은 '전남의 시간'은 현직에게 후호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맞은편 전용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연이어 몸을 풀며 '본선급 경선'이 예고된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동서부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변화와 공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진명계 핵심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을 맡아 전국 조직과 중앙정치에 걸친 체력을 쥐고 있다. 그는 정국회화 현안을 우선하되 지방소멸 대응의 "본질적·종합적·지속가능한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해 정책 경쟁의 바닥을 깔았다.

이개호 의원은 '준비된 도배' 이미지를 전면에 세운다.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행정·국정 경험, 2018년 도지사 경선 불출마로 빚어진 '선당후사' 서사는 여전히 강력한 자산이다. 그는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제철의 경쟁력 약화, 농어촌 소멸 가속 등 현실 위기를 직시하며 "전남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도당위원장을 내려놓



김영록



김화진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이개호·신정훈·주철현·서삼석 등 출마 가시화

조국혁신당·국민의힘 변수까지 겹쳐 혼전 양상

고 전면전에 나설 체비다. 겸사장 출신 범·최고위원을 거쳐 도당위원장으로 당무를 총괄해 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전남이 만든 정치적 자산을 실질 지원으로 환원받아야 한다"며, 동부권 출신 지사 부재에 대한 지역 여론을 결집할 태세다. "22개 시군 구석구석을 돌며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약속은 권역 균형 프레임으로 세우는 메시지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군수 출신 3선으로,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여권을 다지고 있다. 이제 막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을 맡은 만큼,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지만, 당내 정책과 정치일정의 변화를 보여 결심을 굳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출마 시점과 경선 틀에 따라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여지도 있다.

여야 외곽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

의힘에선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전남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겠다"며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진보진영에선 민정기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일부 재·보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제3세력의 득표력은 본선 구도에 예기치 않은 파문을 만들 소지가 있다.

이번 경선의 핵심 쟁점은 '연속성 대 전환'이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의대, 에너지 전환, 국가산단과 광역 인프라 등 '진행형 어젠다'의 완결을 내세운다. 도전자들은 지방소멸과 산업위기의 깊이를 지적하며 속도·방식·우선순위의 '재배치'를 요구한다. 전남이 국가 전략과 직결된 과제를 다루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 통로를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신뢰 가능하게 제시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풍요로운 농부가 되세요

OK! Now Jeonnam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2025

2025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카운트 K-농업

2025. 10. 23.(목) - 2025. 10. 29.(수) 7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JeollaNamdo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